

홈 > 뉴스 > 기업 > CEO

## ‘마이텍의 최대 강점은 기술력’

2014년 06월 22일 (일) 11:13:03

김형준 기자 ✉ samic8315@leaders.kr



박말용 (주)마이텍 대표이사

“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마이텍은 지속적인 기술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,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며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.”

박말용 마이텍 대표이사는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단연 기술력을 손꼽았다.

국내 굴지의 조선소 엔지니어 출신답게 그가 회사 설립 초기부터 공을 들여온 것도 바로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이었다.

박 대표는 “마이텍의 기술력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원전 사업 참여”라며 “원전사업에는 정교하고 수준높은 기술력이 없으면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그는 “2012년에 납품한 플랜트 및 원자력용 열교환기의 신규거래처로부터 향후 큰 폭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이뤄질 전망이다”고 덧붙였다.

향후 세계 플랜트 발주 규모는 중동·동남아의 설비투자 재개, 발전플랜트 증설 등으로 연평균 7%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.

현재 마이텍은 발전·화학플랜트 등 향후 세계 플랜트 시장의 확대에 따른 설비 및 인력 투자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가고 있다.

그는 “플랜트시장을 겨냥해 공장증설 및 고용인력을 큰 폭으로 늘리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”며 “이러한 노력들이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로 되돌아 올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현재 마이텍은 세계 최대의 원전 설비업체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전사업에도 참여하기 위해 해외영업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.

한편 마이텍은 설립 이후 단 한차례의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없이 매년 꾸준한 고용증대로 지난달에는 부산고용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.

박 대표이사는 “신사옥 이전과 더불어 제2의 도약으로 고용창출과 사회공헌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”이라며 “3~4년 뒤에는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터”라고 말했다.

김형준기자 [samic8315@leaders.kr](mailto:samic8315@leaders.kr)

© 일간리더스경제신문(<http://www.leaders.kr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 